

KT, MS와 대한민국 AI 혁신 위한 '자이언트 스텝'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김영섭 대표-사티아 나델라 CEO,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

대한민국 AI·클라우드 기술 및 산업 선도 위해 총수조 원 규모 파트너십

한국형 ChatGPT, Phi3.5, Copilot 공동개발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 AI 저변 확대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AI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KT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하며,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 개발, AI·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er) 구축, AI·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함께한다. 특히 양사는 국내 AI·클라우드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대규모의 협력과 지원 영역을 9월까지 상세화할 예정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가 될 예정이다.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을 경력직을 포함해 올해 최대 1,000명 수준으로 영입하고, 내부 교육 강화와 AI 내재화를 통해 KT의 DNA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선보인 저력 있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KT의 성장을 위해 AI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KT가 AICT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할 것"이라고 개방형 파트너십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KT는 AI 네이티브 환경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음'을 이용해 지니 TV의 콘텐츠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AI로 콘텐츠의 흥행등급을 예측하여 K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화질을 개선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 미디어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T 김영섭 대표는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해, KT가 꿈꾸는 미래가 KT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그룹, AI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AICT 컴퍼니 전략 가속

KT그룹이 인공지능(AI)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의 미디어 사업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확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AICT 컴퍼니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낸다. KT는 스카이라이프티브(skyTV), KT 스튜디오지니와 29일 오전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KT그룹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미디어데이에서 KT그룹은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KT는 KT그룹 미디어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소개했다. skyTV는 개국 20주년을 맞아 AI 보이스로 만든 'EN A' 채널의 새로운 슬로건과 예능 라인업을 공개하고 KT스튜디오지니는 드라마 라인업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김준배 전무, skyTV 김호상 대표, KT스튜디오지니 김철현 대표 등 KT 그룹의 미디어 사업 관련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를 주도할 방침이다.

"AI로 병원 예약부터 진료까지" KT, 종합병원에 도입한 AI 서비스 본격 가동

디지털 환경이 낳은 노년층 대상 AI로 수월한 예약 지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고객센터에 도입한 'KT 에이센(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8일 KT 에이센(A'cen)을 소개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AI 누리집을 통한 접수한 예약과 관련된 취소 등 예약 일정을 관리할 수 없었다. 여기에 예약접수부터 예약 취소까지 AI가 가능하고, 챗봇이나 보이는 AI 디지털 화면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도 음성 통화만으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KT는 AI 네이티브 환경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음'을 이용해 지니 TV의 콘텐츠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AI로 콘텐츠의 흥행등급을 예측하여 K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화질을 개선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 미디어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T 김영섭 대표는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해, KT가 꿈꾸는 미래가 KT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 생성형 AI 활용 우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 100'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100은 KT 임직원들이 AICT 역량을 실제 사업화 가능한 서비스 개발하는 해커톤이다.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서버비 예능 구조를 적용해 '공공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100인의 생존 경쟁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미래100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

KT는 AI 네이티브 환경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음'을 이용해 지니 TV의 콘텐츠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AI로 콘텐츠의 흥행등급을 예측하여 K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화질을 개선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 미디어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T 김영섭 대표는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해, KT가 꿈꾸는 미래가 KT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 독보적인 AI KT는 Microsoft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AI 시대를 엽니다.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